

# 中等學校 英語科教師 特殊研修教育課程 開發 및 運營에 關한 研究

趙 義 淑\*

## 序 論

1. 研修教育課程 開發의 動機
2. 教育研究의 새로운 動向
3. 社會教育의 側面에서 본 教師 再教育의 意義
  - 가. 平生教育의 개념
  - 나. 循環教育의 개념
  - 다. 社會教育의 개념과 類型
  - 라. 再教育 形態
4. 一般 學校教育課程의 構成原理
  - 가. 教育과정에 對한 定義
  - 나. 教育과정의 類型
  - 다. 教育과정의 構成
  - 라. 학습범위의 設定
5. 再訓練教育으로서의 敎育과정의 구성과 原理
  - 가. 목적 및 취지

- 나. 教育목표
- 다. 教育내용
- 라. 敎수진행의 모형
- 마. 수업진행과정
- 바. 反饋성 원칙
- 사. 敎育대상자에 對한 일반적 사항
6. 評 價
  - 가. 評價의 原理
  - 나. 意見調查 結果
    - (1) 제 1기생의 의견 조사 結果
    - (2) 제 2기생의 질문지 조사 結果
  - 다. 評價 結論
- 부록 1. 敎育과정 1·2기별 통계자료 및 질문지 처리 結果 자료—도표목차
- 부록 2. 제 2기 T.R.I. 敎育과정의 자체 평가를 위한 질문지

## 序 論

우리 社會의 급격한 變遷은 모든 社會성원들이 一生을 통하여 새로운 技術과 知識을 계속적으로 획득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을 걸친 學校教育은 一生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 불가피한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리고 과거에 습득한 知識이나 技術 그리고 지혜가 현대에 와서도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活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生을 마칠 때까지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우기 이미 학습했던 知識들중에 무가치해진 것들도 많아졌음을 알게 되었다. 급증하는 새로운 知識과 복잡한 社會문제, 그리고 社會발전에 적용될 막대한 知識의 量에 對한 적용을 위하여 평생토록 학습을 계속할 必要가 절실히 지게 되었으며, 또한 학습하지 않으면 가치있는 生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문적 직업에 對하여는 各部分別로 될 수 있는 限 빠른 期間內에 재훈련을 받지 않으면 같은 직업에 충실하게 종사할

\*文理科大學(서울) 敎授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상황이다. 금번 본교에서 관여하게 된 中等學校 英語敎員 再敎育은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부응하는 課題였다. 國際的 경쟁 속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우기 고도로 훈련받은 고급인력의 공급이 시급히 요청되게 되었으므로 外國語 敎育에 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르는 再敎育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文敎部 敎職敎育局 研修課와 함께 再敎育課程을 설정할 계획으로 1979년 4월부터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試圖的으로 實踐計劃을 수립하게 되었다.

## 1. 연수교육과정 개발의 動機

本校에서는, 1973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實驗大學 운영의 모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 교과 운영의 改善點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입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성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입시과목중 영어성적과 입학후의 영어독본 성적과의 相關關係를 조사한 결과 상관성이 있었으나 입시성적과 Spoken English(이하 S·E로 칭함) 그리고 입시성적과 Lab 또한 S·E와 Lab의 相關性은 거의 없었다. 물론 그원인은 출제내용과 입학 후 교과 내용이 다른데서 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영어영문학과 교수들을 통하여 reading과 S·E 그리고 Lab을 일괄성있는 교과내용으로 재편하고 연구하며 교육하게 되었다. 수년동안 연구적으로 교양 영어 교수법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1978년부터 UB(미국 연합기독교) 재단의 지원아래 동일과목 교수법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시청각 교육 기재사용을 통한 여러가지 교수방안을 개발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 같은 지원으로 中等學校 영어교원을 위한 大學院 과정도 설정하게 되었다. 종래에는 대학영어의 기능을 전공과목 이수 기초로 생각하여 독본 위주로 교수하였으나 사회적 요청과 도전에 부응하여 外國語 구사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實驗英語班을 1979학년도 2학기부터 편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의 中·高等學校의 敎育을 통하여 습득되어 온 英語 실력을 보완하고 육성할 방안을 찾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 보고서를 대신할 이 논문은 本校 시청각 교육실의 교육여건과 미국인 교수들의 전적인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協同的 敎育계획의 실천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80년대 이후 한국국민의 세계시민으로서의 공헌도를 예상해 볼 때 어떤 外國語든지 모국어 못지않게 능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동기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차제에 文敎部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되었으며 그 시도책으로 1.2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 1기는 1979년 9월 24일 부터 12월 14일까지(본래 계획은 11월 30일까지 10주 계획이었으나 10.26사태로 2주연기) 12주간(250시간)동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 근무하는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를 200명에게 비합숙 교육을 하였다. 제 2기는 1979년 12월 17일부터 80년

2월 22일까지 본교 생활관을 활용하여 전국 각 시·도 영어교사 250명에게 연말연시 2주간을 제외하고 8주간 400시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 2. 教育研究의 새로운 動向

현재 여러나라에서 平和的 目的에 소비되는 국민경제 중 私立 教育기관에 대한 원조액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英·美國과 같이 地方分權制度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教育經費가 地方行政의 총지출액중 반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막대한 교육투자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기게 되었으므로 各國은 教育研究의 中央기관이나 학교 협의회등 중앙에서 연구를 조정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재정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 많은 工業國들이 國民 총생산(GNP)의 3퍼센트 내외의 액수를 교육을 위해서 지출해 왔으나 1975년까지는 6.5퍼센트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므로 教育研究는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一部分이 되어온 것이다. 연구와 국가 目標와의 관계는 다시 다음과 같은 事項의 변화에 의해서 촉진되어 왔던 것이다.

가. 研究者에게 이용되는 「知識의 量」의 변화(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6年마다 倍加되고 전체적으로는 10년내지 20년마다 倍加되어 왔다.)

나. 국가번영의 기초가 되고 젊은이들이 學校를 졸업하고 進出하는 「직업의 性格」의 변화  
다. 「學校 內 젊은이의 수」와 그 사회적 背景의 變化

라. 그 젊은이들에 對處할 만한 學校組織과 커리큘럼」의 變化

마. 커뮤니케이션의 手段, 情報源, 職業으로서의 敎員의 性格의 變化

바. 불확실한 것을 배우는 立場에서의 전반적인 전환에 따라 일어나는 變化, 또는 總體的으로, 「自發的 學習」이나 프로그램 學習의 強調로 말미암아 일어난 變化

사. 成人이 된 後에 行해지는 「再學習 再訓練의 必要」등을 들 수 있다.<sup>1)</sup>

이상과 같이 社會나 그안에 있는 學校를 뒤흔들고 있는 복잡한 變化의 결과로 研究의 理論面이나, 方法論面이나, 그 人的인 면, 그리고 研究에 관계되는 組織面에 있어서 教育研究를 再考해야 할 必要가 생기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중에도 國家의 학교조직이나 國民生活의 여러면에 걸쳐서 끊임없이 실제적인 시도를 해보아야 하는 教育研究의 새로운 役割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국가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한 國家에서 시행되는 그 어떤것도 국제적인 발전의 방향에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지지 않으면 意義가 없다고 볼 수 있다. 教育一般, 教育豫算, 敎員의 身分이나 그 資格에 관한 法律的 問題는 국가의 영향아래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된 사항은 모두 그 나

1) 海後宗臣編, 教育學全集 I, 教育學의 理論(東京:小學館, 1968) p.188 再引用

라 나름의 特異性을 갖게 됨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우기 研究方法에 있어서도 아주 복잡해졌으므로 모든 研究成果는 실제적인 관점에서 再評價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조직이나 方法에 관한 연구와 연구자의 訓練에 대한 研究, 그리고 實驗的 狀況下에 연구결과를 적용하게 될 사람들의 再教育이나 訓練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現代의 教育研究는 반드시 學術的 기관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研究의 成果는 반드시 보편적 法則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一時的인 가치만을 갖는 것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sup>2)</sup>

### 3. 社會教育의 側面에서 본 敎員再教育의 意義

#### 가. 平生教育(Lifelong Education)

平生教育은 교육의 여러 側面에서 統合하고 單一化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個人의 發達過程이 유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듯이 교육도 개인이 가정에서나 學校 또는 社會一般에서의 生活 조건에 적응하면서 生의 段階別로 成長하는 모든 측면을 다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循環教育(Recurrent Education)

순환교육은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能力이나 관심을 더욱 증진시키며 자극하여 生의 폭을 넓게하고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再教育 또는 再訓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전문적인 職業에 종사하고 있거나 社會內에서의 一定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自己改善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教育이라 하겠다. 순환교육의 理論은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가 내건 政策理論이다.<sup>3)</sup> 순환교육은 義務教育을 마치고 社會에 진출한 사람들을 언젠가는 다시 學校에 돌아오게 하는 制度이다. 곧 學校教育을 人生의 前半期에 모두 마쳐야 할 필요가 없고 후기 中等교육이상의 교육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教育體制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순환교육 이론이 나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교육의 양적 확대가 社會的 平等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점, 社會 經濟的 변동이 계속적으로 개인의 社會적 職業적인 재적응을 요청하게 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교육이 필요하게 된 점,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 등이다.

2) 前掲書, pp.188~190

3) 張眞鎬, 社會教育의 方向, (서울: 正益社, 1979) pp.72~74

### 다. 社會教育의 類型<sup>4)</sup>

社會教育의 類型은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대체로 一般的, 機能的인 面에서와 再教育, 學歷向上的 面에서 설명하려 한다. 社會教育이란 말은 正規學校教育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며 社會教育의 理想은 平生教育의 立場과 순환교육의 立場을 더욱 접근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再教育 形態

再教育 혹은 再訓練 형태는 특정 團體나 기관이 산하요원의 직업적 혹은 경영적 측면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든가 또는 사기 진작을 기대하여 실시하는 目的的 유형인 하나로 볼 수 있다. 現職教育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教育史에서 교사의 再教育 또는 再訓練이 시작된 연원은 吳天錫 著書인 「韓國新教育史」의 다음과 같은 部分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닫혔던 학교를 再開하는 일과 일본어 교과서를 대신할 새로운 교과서를 마련하는 일 외에 학무당국의 苦心을 강요하는 것은 敎員再訓練이라는 難事였다. 한국어를 통하여 학과를 가르칠 만한 충분한 能力을 가진 敎員이 그리 많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글에 대한 再教育을 받지않을 수 없었다. 학무당국은 편수관계 職원과 朝鮮어학회 會원의 協력을 얻어 한글강습회를 개최하여 이 결함을 보충하기 에 힘썼다……이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1945년 12월 22 일부터 이듬해 1월 19일 까지 거의 한달에 걸쳐 서울에서 초등학교 敎사 강습회를 열고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중등학교 敎사 강습회를 역시 서울에서 개최하였다……이 밖에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하기대학, 하기학교, 하기강습회 등을 열어 民主主義 敎育이 넘과 신敎수법에 대한 敎員 再敎育을 실시하였다.”<sup>5)</sup>

위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은 平生教育, 循環教育, 社會教育등의 定義들은 본 연수교육의 위치를 정하는데 있어서 確실한 概念形成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의 모든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통한 사회적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4. 一般 學校教育課程의 構成原理

### 가. 敎育과정에 대한 定義

커리큘럼에 대한 定義는 敎育哲學과 밀접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서 著名한 敎育學者들의 主張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의 둘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4) 前掲書, p. 159

5) 吳天錫 “韓國新教育史”(서울: 現代敎育叢書出版社, 1964) pp. 394~395

- (1) 커리큘럼은 學校에서 教授되는 全教科內容이다.
- (2) 커리큘럼은 학교에서 定한 教育目的을 達성하기 爲해 學習者에게 제공하는 知的, 情  
緒的, 技能的, 身體的 제경험의 종합이다.<sup>6)</sup>

#### 나. 教育과정의 類型

教育課程이 內容的으로 어떠한 性격을 가지고 있고 그 過程을 이수하면 어떠한 人間이 형  
성되느냐에 따라서 教育課程의 類型이 구분된다. 教育내용이 文化的 知識을 中心으로 하여  
教科로 구분해서 조직한 것을 教科中心教育課程(Subject Centered Curriculum)이라 하고, 人  
間의 生活活動을 중심으로 하여 社會生活에 필요한 學習內容으로써 조직된 것을 生活中心教  
育課程(Life Centered Curriculum)이라 하며 아동의 趣味, 慾求, 관심을 기준으로 하여 조  
직된 것을 兒童中心教育課程(Child Centered Curriculum)이라고 하여 셋으로 大別하였다.

#### 다. 教育과정의 構成

융통성있고 민주적인 教育과정을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sup>7)</sup>

- (1) 학교 및 地域社會의 生活상태를 참고하여야 한다.
- (2) 社會의 諸問題 及 요구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3) 학생이 장차 社會에서 一定한 역할을 담당하고 市民的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구  
성해야 한다.
- (4) 다른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나라의 사람들과 親善의 마음으로 相互扶助의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지방 及 다른나라의 社會를 이해하도록 한다.
- (5) 學生들의 스스로가 살고있는 環境을 순화하도록 道義的인 책임감을 강조해야 한다.
- (6) 現代와 같은 分業이 발달된 시대에 있어서 科學的 技術을 연마하고 다른 개인과 협조하  
여 文明된 社會를 건설하도록 한다.
- (7) 教育은 현실의 不완전한 人間成長發達을 助長하며 이상적인 人格으로 형성하는 形成的  
作用인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教育을 통하여 家庭生活, 公民生活, 職業生活, 教養生活에  
필요한 資질을 갖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 (8) 아동 及 學生의 各 年령층에 적합한 教育내용이라야만 하고 아동의 社會階級도 고려해  
야 한다.
- (9) 知識技能의 최소량을 확보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6) 李圭煥, 學校의 教育課程, (서울: 梨大出版社, 1971) p. 7

7) 前掲書, pp. 111~112

## 라. 학습범위의 設定

교육과정의 범위라는 것은 커리큘럼에 채택하는 학습경험의 영역 또는 범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教育課程에 포함되는 경험영역은 民主的社會에서 生活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평가능력 그리고 태도등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학습경험을 내포하며 또한 학습활동을 생생히 발달시키는 것이라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一般的인 교육과정 구성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연수과정 구성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 5. 再訓練教育으로서의 연수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 가. 목적 및 취지

中等學校 現職 英語教師의 再教育을 目的으로하며 새로운 영어교육과정에 부합되는 교수법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영어교육의 새로운 동향을 알게 하며 영어의 정확한 어법(diction)을 습득하고 훈련하며 自己表現力을 보강하므로써 영어의 正確한 驅使力을 함양하고 영어교육의 專門性을 심화시킴을 目的으로 하였다.

### 나. 교육목적

- (1) 바로 들을 줄 알게 한다. — 외국인 강사의 강의에 대한 청취능력(hearing ability)을 신장 시킨다.
- (2) 바로 말할 줄 알게 한다. — 口語英語(Spoken English)로써 自由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한다.
- (3) 바로 글로 쓸 줄 알게 한다. — 作文能力(Composition ability)을 正確하게 갖게하므로써 의사표시를 文章化할 수 있게 한다.
- (4)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어떤 상황에도 적시에 외국인(English Speaking people)과 대화할 수 있는 實用的인 生活英語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다. 교육내용

연수과정과 그 수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역	과정명	배당시간 (주당)	수업방법
I. 훈련분야	1. 낭독훈련 (Oral Interpretation)	2	희곡, 소설, 수필 등을 입체낭독함으로써 정확한 발음 억양을 실습하고 문법과 어법 관계의 균형을 이룩하도록 한다.
	2. 영어 청취력 및 구사력을 위한 집단지도(LAB)	5-7	1에서 학습한 소재를 구어화하여 듣기와 말하기를 연습한다.
	3. 구어영어지도(S·E)	4-6	2에서 익힌 영어로 실제 외국인 교수와 대화하므로 듣기와 말하기를 익히도록 한다.
	4. 개인별 어법지도(S·L)	4-7	3에서 필요로 하는 구어영어를 녹음기 또는 TV 상영을 통해 보충 연습하고 담당교수의 평가를 받는다.
II. 적용분야	5. 영작 및 의사전달 훈련 (Composition & public speaking)	4-5	1) 외국영화를 관람하고 요약 또는 주어진 제목을 영작하여 교정받아서 발표한다. 2) 제한된 시간내에 요령있고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을 훈련한다.
	6. 특강	3-4	1) 5의 확장된 영어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훈련하며 적응능력을 신장시킨다. 2) 한국어 특강이나 외국인 특강은 영어로 요약하며 정확하게 표기하고 구어로 발표할 수 있게 한다.
III. 확산분야	7. 영어교수법	4-6	1) 영어교수법(시청각교수법을 중심으로)의 이론과 새로운 교수법의 동향을 연구한다. 2) 학습자료 연구조사 및 제작을 한다. 3) 학습기자재 활용방법 연구와 정보교환을 한다. 4) 새로운 교과내용학습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연구한다.
	8. 영어연구	10-11	1) Via method 에 의한 심리적 불안감 제거를 위하여 합숙훈련한다. 2) 워크샵 및 개별청취력을 연습시킨다. 3) 창작희곡을 공연함으로써 각 개인의 잠재된 영어의 입체화 및 확산을 꾀한다.
총 계		250-400	

## 라. 교수진행의 모형

Area(영역)	Topic Study(소재)	Hearing Speaking Drill (훈련 I)	Actual Hearing and Speaking (훈련 II)
I. 훈련분야	1. 낭독훈련(50명 단위)	2. 영어청취력 및 구사력 집단지도(50명 단위)	3. 구어 영어지도(25명단위)
			4. 개인별 어법지도(25명단위)



Ⅱ. 적용분야	5. 영화감상 (100명단위)	5. 영작및 교정 (50명단위) 6.	5. 발표 및 토의 (25명단위)
	6. 특강 (100명단위)		6. 발표 및 토의 (25명단위)
Ⅲ. 확산분야	7. 영어교수법 (50명단위)	교재조사 연구 및 제작 (25명단위) 워크샵 (10명단위로 합숙훈련)	개별제작 및 전시 시범수업 실습
	8. 영어연극 (100명단위)		개별교정 및 지도

마. 수업진행 과정

반조직은 四區分하였으며 점차적인 적응력을 자발적인 발표력 구사에까지도 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첫째 영역은 口話能力의 신장을 위한 반조직이며, 첫째단계는 中等學校 교실과 同一한 狀況下에서 類似한 前提條件을 고려하며 50명단위의 인원에게 주어진 교과서를 소재로 하였고 reading 을 중점적으로 學習하게 하였으며 Oral interpretation 을 통하여 교수와 연수생의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였다. 둘째단계는 집단적으로 50명 단위의 Lab 실에서 分化된 소재를 가지고 교재 또는 화면을 통하여 口語化하므로써 視·聽·話를 同時에 연습할 수 있게 되므로 잠재되어있는 語學力을 驅使할 수 있도록 자극받고 확산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단계는 소집단 대화중심의 半편성으로 25명 전체 또는 2명이상의 role play 를 함으로써 듣기와 말하기를 외국인과 직접적인 對人關係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외국인과 의 대화를 주저함없이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며 영어로 주어진 장면을 설명하고 役割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넷째단계는 주로 口話를 위한 청취능력의 訓練이며 적극적인 自己訓練을 통해서 自己表現의 잠재력을 더욱 蓄積시키게 된다.

둘째 영역은 文章으로 表現할 수 있는 能力을 再訓練하는 課程이다. 첫째단계는 장시간의 특강을 듣게 함으로써 理解力을 증진시키고 둘째단계는 정확하게 文章化하는 作文力을 涵養시키게 된다. 가장 약점으로 여겨지는 作文力은 오랜 기일이 要請되므로 특별히 個個人의 作文의 결과를 교정 받아가며 作文 訓練을 쌓게 된다. 셋째단계는 자기가 작성한 作文을 發表하고 특강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口話力과 作文力의 統合을 갖게 되도록 지도받는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영역은 교사자신의 資質을 向上시키는 기본훈련이다. 그러나 專門的인 現職教師로서의 再教育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일이라 하겠다.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하는 방안으로 시청각 기재를 다룰 수 있도록 실습하고 시청각 機教材活用을 위한 교수법의 원리를 학습하므로써 보다 더 効果的인 교수 방법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하여 제작하고 또 활용 방법까지 構案하게 된다. 活用된 시청각 기교재에 대한 제작과정과 활용방법에 대한 展示 또는 示範過程이 評價方法으로 적용되

도록 지도한다.

### 바. 반편성 원칙

제 1 기생 200명에 대한 반편성의 원칙은 能力別로 하였으며 등록일에 실시한 예비시험에 따라 청취능력을 위주로 하여 반을 편성하였다. 50명 단위로 조직되었고 다시 25명 소단위로 나누어서 8개 반으로 분반하였다. 제 2 기생 250명을 위해서는 平準化를 원칙으로 하여 반편성을 50명 단위로 5개 반으로 하고 다시 25명 단위로 10개 반으로 분반하였다. 예비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지그재그로 배정하였으므로 班成績은 고르게 되었으나 個人別 能力差는 심한 편이었다. 이상과 같이 2기에 걸쳐 각각 다른 편성 원칙을 적용하였던 결과 各己 長短點을 나타내게 되었다. 제 1 기생의 경우는 能力別 집단이므로 能力의 差가 비슷함에 따라 競爭의으로 訓練하고 학습할 기회를 더욱 촉진하게 되는 경향이었으며 따라서 충분히 短期間內에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短點으로 지적하면 班別로 能力에 따라서 目標達成期間을 달리 설정해야 하며 指導方法과 素材도 달리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교수의 幅넓은 연구와 力動性있는 지도력이 뒤따라야 한다. 제 2 기생의 班編成에 대하여는 平準化에 따랐으므로 班內의 構成員의 能力의 차이가 크므로 指導方法에 있어서나 素材를 소화시키는 過程에 있어서 서로 보완하고 자극하며 動機誘發이 촉진되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동기유발보다는 도리어 우수한 能力者의 獨占可能性과 열세에 있는 학습자의 체념적인 방관적 태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語學教育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 사. 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

제 1 기 200명과 제 2 기 249명 연수생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평가의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포표를 작성 하였다.

#### ① 시·도별 분포

연수대상 인원은 서울 170명 (37.86), 경기 62명 (13.81), 경북, 전남……제주도의 순서로 참가하였다(〈표 1〉참조)

#### ② 중·고별 분포

중학교 근무는 1기생 194명 (43.21), 2기생 149명 (33.18) 합계 343명으로 76.39퍼센트로 대부분의 연수생이 중학교 교사로 구성되었다. (〈표 2〉참조)

#### ③ 성별분포

여교사는 제 1 기에만 137명으로 1기생 200명에 대하여 68.5퍼센트에 달하고, 남교사는 2기생 전체 100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차출기준 설정에 따라서 2기생이 차

<표 1> 시 · 도 별

시·도별	1 기					2 기					총계	비율	
	1반	2반	3반	4반	계	1반	2반	3반	4반	5반			계
서울시	45	49	36	40	170							170	37.86
경기도	5	1	14	10	30	6	8	4	12	2	32	62	13.81
충청북도						3	3	3	2	3	14	14	
충청남도						8	5	5	5	5	28	28	
강원도						3		5	2	5	15	15	
경상북도						5	8	5	10	15	43	43	
경상남도						6	8	4	3	9	30	30	
전라북도						6	8	5	3		22	22	
전라남도						5	7	11	8	5	36	36	
부산시						8	3	4	4	5	24	24	
제주도								4	1		5	5	1.11
	50	50	50	50	200	50	50	50	50	49	249	449	

<표 2> 중 · 고 별

중·고별	1 기					2 기					총계	비율	
	1반	2반	3반	4반	계	1반	2반	3반	4반	5반			계
중학교	49	50	48	47	194 (43.21)	32	30	32	28	27	149 (33.18)	343	76.39
인문(종합)고교			2	1	3	15	11	14	18	14	72	75	
실업고교	1			2	3	2	7	4	4	8	25	28	
무표시						1	2				3	3	
	50	50	50	50	200	50	50	50	50	49	249	449	

<표 3> 성 별

성별	1 기					2 기					총계	비율	
	1반	2반	3반	4반	계(%)	1반	2반	3반	4반	5반			계(%)
남	7	12	25	19	63	50	50	50	50	49	249 (100.)	312	69.49
여	43	38	25	31	137 (68.5)							137	
	50	50	50	50	200	50	50	50	50	49	249	449	

출된 까닭이다. (<표 3>참조)

④ 연령별 분포

1기생 200명에 대하여 25세 미만이 63명으로 35.5퍼센트를 차지하며, 35세 미만이 172명으

<표 4> 연 령 별

연령별	1 기					2 기					총계	누계	비율	
	1반	2반	3반	4반	계	1반	2반	3반	4반	5반				계
57년생	4	8	1	1	14							14	14	
56	7	10	6	5	28							28	42	
55(25세)	5	9	3	4	21					1	1	22	64	
54	14	1	4	8	27	1	2	1	1	2	7	34	98	
53	7	6	5	4	22	1	3	1	2	1	8	30	128	
52	2	3	4	6	15	2	1	5	1	6	15	30	158	
51	2	5	2	1	10	2		6	3		11	21	179	
50		2	2	4	8	6	2	1	3	3	15	23	202	
49	1		4	4	9	5	2	4	2	5	18	27	229	
48	2	2	2	1	7	6	4	6	3	4	23	30	259	
47	1	2	1	2	6	4	2	3	4	3	16	22	281	
46	2				2	2	2		2	2	8	10	291	
45(35세)	1	1		1	3	4	2	5	1	5	17	20	311	69.27
44	1		3	1	5	4	4	1	2	4	15	20		
43						4	7	1	2	2	16	16		
42	1	1	2	4	8	1		6	7	1	15	23		
41			2	2	4	4	3	3	3	4	17	21		
40			2	2	4		4	3	4	3	14	18		
39			1		1		3		1		4	5		
38			1		1		3		1	1	5	6		
37			1		1	1	1	1	2	1	6	7		
36						1	1	1	2	1	6	6		
35							2	1	2		5	5		
34						1	1				2	2		
33			1		1							1		
32			1		1		1				1	2		
31														
30(50세)									1		1	1		
29											1	1		
28								1			1	1		
27			1		1							1		
26														
25														
24														
23														
22														
21			1		1							1		
무표시						1			1		2	2		
	50	50	50	50	200	50	50	50	50	49	249	449		

〈표 5〉 연 수 구 별

연수구별	기 반	1 기					2 기					총계	비율	
		1반	2반	3반	4반	계	1반	2반	3반	4반	5반			계
일반연수		41	42	38	49	161	12	21	26	20	27	106	267	59.47
자격	1정 //	9	8	10	10	37	38	26	24	27	22	137	174	38.75
	2정 //			2		2		3		3		6	8	1.78
계		50	50	50	50	200	50	50	50	50	49	249	449	100

〈표 6〉 출 신 대 학 별

학교별	기 반	1 기					2 기					총계	비율	
		1반	2반	3반	4반	계	1반	2반	3반	4반	5반			계
1. 서 강 대		1	5			6							6	
1. 서 울 대		2	16	3	2	23		3	3	1		7	30	6.68
3. 성신여사대		4	3	1	3	11							11	
4. 외 국 어 대		2	4	1	1	8				2	1	3	11	
5. 상 명 사 대			1	2	1	4							4	
6. 승 전 대			1	3	3	7		2	1	3	2	8	15	
7. 이 화 여 대		13	11	6	6	36							36	8.02
8. 숙 명 여 대		2	2	2	2	8							8	
9. 건 국 대				3	2	5		1		1		2	7	
10. 성 균 관 대		3	1		1	5	2	1	2	2	2	9	14	
11. 경 회 대		7	1	1	4	13		2				2	15	
12. 국 제 대			1		1	2							2	
13. 한 신 대			1			1							1	
14. 중 앙 대		2	1	4	8	15	4	2	4	3	3	16	31	6.90
15. 덕 성 여 대		1			1	2							2	
16. 연 세 대		2			1	3							3	
17. 고 려 대		1		4	1	6		2	1	4	1	8	14	
18. 한 양 대		1		2		3				1	1	2	5	
19. 수 도 여 사 대		1		3	5	9							9	
20. 서 울 여 대		1				1							1	
21. 서 울 교 육 대					1	1							1	
22. 명 지 대				2	1	3	1	1				2	5	
23. 장 로 교 학 대					1	1							1	
24. 단 국 대				2		2							2	
25. 동 국 대				1		1		1	2	1	1	5	6	
26. 흥 익 대				1		1							1	
27. 인 하 대					1	1							1	
28. 부 산 대			1			1	2	3	2	1	3	11	12	

29. 공주사대		1			1	7	1	6	5	3	22	23	5.21
30. 상지대	1				1							1	
31. 계명대	1			1	2			2	2	5	9	11	
32. 효성여대	1				1							1	
33. 청주대			1	1	2	2			1	1	4	6	
34. 강원대				1	1	2	1	2	1	4	10	11	
35. 제주대				1	1	1		2	2	1	6	7	
36. 전남대			1		1	2	1	4	2		9	10	
37. 전주대			1		1	1			1		2	3	
38. 원광대			1		1	3	5	2			10	11	
39. 동아대					7	2	4	2	5	20	20	20	4.85
40. 춘천대					1						1	1	
41. 경남대					1		1		1	3	3	3	
42. 전북대					1	3	1			5	5	5	
43. 관동대					1						1	1	
44. 경상대					1	2	1	1	1	6	6	6	
45. 진주농대					1	2				3	3	3	
46. 경북대					4	4	1	4	7	20	20	20	
47. 조선대					2	1	4	3	2	12	12	12	4.85
48. 영남대					1	2	1	2	3	9	9	9	
49. 충남대					1	3	2	2		8	8	8	
50. 충북대						2	1	1		4	4	4	
51. 경기대							1			1	1	1	
52. 원주대									1		1	1	
53. 광주사대									1		1	1	
54. 목포교대										1	1	1	
55. 부산수산대										1	1	1	
56. 검정고시					2	2					4	4	
57. 무표시	4		5		9		1				1	10	
	50	50	50	50	200	50	50	50	50	49	249	449	

<표 7> 교육경력별

경력별	기 반	1 기					2 기					총계	비율		
		1반	2반	3반	4반	계	1반	2반	3반	4반	5반			계	
일 반 연 수	1년 미만	13	23	12	18	66				1	1	2	4	70	15.59
	2년 "	21	8	8	4	41	1			3			4	45	10.02
	3년 "	3	6	5	9	23	1	1	4			2	8	31	
	5년 "	1	3		2	6	3	2	1		5	11	17		
	7년 "		1	3	1	5	4	3	5	3	6	21	26		
	7년 이상	2		8	4	14	3	13	9	13	10	48	62	13.81	
무표시	1	1	2	2	6		2	3	3	2	10	16			
		41	42	38	40		12	21	26	20	27		267	59.46	

1 정 연 수	3년 이상	9	7	9	5	30	23	18	14	13	10	78	108	
	5년 "		1	1	5	7	11	4	7	8	9	39	46	
	10년 "							1	2	3		6	6	
	15년 "													
	무표시						4	3	1	3	3	14	14	
		9	8	10	10		38	26	24	27	22		174	38.75
2 정 연 수	1년 미만			1		1							1	
	2년 "													
	3년 "							1		1		2	2	
	5년 "									1		1	1	
	7년 "							1				1	1	
	7년 이상			1		1		1		1		2	3	
	무표시													
				2				3		3				
		50	50	50	50	200						249	449	

로 86퍼센트에 달한다. 그러나 2기생은 25세 미만이 단 1명뿐이며 35세미만은 140명(56.2)이며 전체는 311명으로 69.27퍼센트에 달한다. 50세 이상은 4명뿐이다. (<표 4>참조)

⑤ 연수국별 분포

일반연수 대상이 267명(59.47)에 비해서 자격연수 대상자는 182명(40.53)이다. 자격연수는 주로 1정자격이며, 174명(38.75)에 달한다. (표 5참조)

⑥ 출신대학별 분포

출신대학별로 구별하면 이화여대출신이 36명(8.02) 제일 많고, 중앙대 31명(6.9), 서울대 30명(6.68)이며, 공주사대 23명(5.12) 동아대와 경북대는 각각 20명(4.45)으로 구성되었다. 15개교 출신자는 단 1명뿐이며 총계 검정고시 합격자와 무표시자를 제외하면 55개교에서 참가하였다. (<표 6> 참조)

⑦ 교육경력별 분포

일반연수자는 1년미만의 70명(15.59)이 주로 1기생이며 2년미만은 1·2기 합하여 115명(25.61)이고, 그 중 107명이 1기에 연수하였다. 일반연수생 전체는 267명으로 59.46퍼센트에 달한다. 1정은 174명으로 38.75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주로 2기생이다. (표 7 참조)

이상과 같은 <표 1>에서 <표 7>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해결하게 된다.

(1) 시·도별 연수대상 인원은 서울이 70명(37.86), 경기 62명(13.31)→제주 5명(1.11)의 분포 순위이다.

(2) 중·고별 연수 대상 인원은 중학교 1기 200명에 대하여 194명(97.0) 2기 249명에 대하

여 149명(58.84) 합계 343명(76.39)이 중학교 교사이다.

(3) 성별연수대상인원은 1기 200명에 대하여 여자 137명(68.5)과 2기 남자 249명 전원이며 2기 차출이 남자 뿐임은 생활관 합숙때문이었다.

(4) 연령별 연수대상인원은 1기 200명에 대하여 35세미만(45년생)이 172명(86.0), 2기 249명에 대하여 35세 미만이 139명(69.0) 전체 311명(69.27)이며 50세 이상이 4명(0.89)뿐이다.

(5) 연수구별 대상인원은 일반연수 267명(59.47) 1정 174명(38.75)이다.

(6) 출신대학별 연수대상 인원은 이화여대 36명(8.02), 중앙대 31명(6.90), 서울대 30명(6.68), 공주사대 23명(5.12), 동아대와 경북대 각각 20명(4.45)이상이며 15개교 출신자는 단 1명 뿐이며 총계 검정고시합격자와 무표시자를 제외하고 55개교에서 참가하였다.

(7) 교육경력별 연수대상 인원은 일반연수 1년미만이 70명(15.59), 2년미만이 45명(10.02) 7년이상 62명(13.81)이다. 1정연수자는 모두 3년이상 12년으로 경력의 폭이 크다.

전체 60퍼센트 가까운 연수생이 일반연수이므로 요망사항과 연수에 대한 혜택조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6. 評 價

### 가. 評價의 原則

학습범위와 수업진행 과정을 통하여 目的이 달성되었는가를 評價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 (1) 教育目的 설정에 관한 評價

특수한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기대되는 대로 되었는가?

#### (2) 학습범위의 設定에 관한 評價

연수생의 바람직한 行動變化에 도움이 되는 학습경험을 제공하였는가? 또한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내용이었는가?

#### (3) 학습내용의 系列(配列)에 관한 評價

학습내용이 통합성을 유지하고 심리적 과정을 고려하여 系列의 원리를 잘 적용시켰는가?

#### (4) 교육과정의 一般의인 評價

교육과정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좋은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ㄱ) 좋은 교육과정은 社會的 理解를 발달시킨다.



- (ㄴ) 좋은 교육과정은 최대한의 個人的 발달을 장려한다.
- (ㄷ) 좋은 교육과정은 경험의 계속성을 장려한다.
- (ㄹ) 좋은 교육과정은 모든 教育目標 사이에 균형을 유지한다.
- (ㄹ) 좋은 교육과정은 학습장면에서 나타난다.
- (ㅎ) 좋은 교육과정은 효과적인 학습 경험과 필요한 자원을 이용한다,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의 실제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意見調査를 실시하였다.

(5) 의견조사의 절차

첫째는 제 1기생에게는 제 1차로 연수원 자체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제 2차는 연수생 자체내에서 한 연수생의 자발적인 연구로 조사를 하였으며, 제 3차로 文敎部 연수과에서 실시한 의견조사였다. 제 2기생에게는 제 1기생에게 실시한 의견조사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실시한 결과를 통계처리하였다.

나. 의견 조사결과

(1) 제 1기생의 의견 조사결과

(ㄱ) 연수원 및 문교부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

제 1기생 200명중 120명 (60퍼센트)이 설문에 대하여 응답을 하였으며 연수원 자체에서 얻은 응답과 문교부에서 설문한테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문교부 및 교육위원회에 대한 요망사항
- 2) 근무교에 대한 요망사항과 본인의 애로점
- 3) 연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법에 대하여 느낀 점
- 4) 연수원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점
- 5) 본 연수과정의 必要性

응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문교부와 교육위원회에 대한 요망사항

- ① 자학교와의 타협하에 근무교의 수업을 줄여 보다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망함.
- ② 현실에 맞게 피연수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작성을 요망함.
- ③ 문교부 당국자가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추진하여 주길 요망함.
- ④ 문교부 산하 상설연수원을 만들어 program, 교수진, 시설에 만전을 기해 현재와 같은 낭비를 없애야 함.

⑤ 보다많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요망함(외국인 선정에 있어서 교수경력이 있는 교사 선발요망→이는 외국인이라고 반드시 좋은 교사가 아니고 가르친다는 자체가 일종의 기술임을 참작요망)

⑥ 한국인 및 외국인 교수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거리감없이 친절히 대하여 주시므로 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니 계속 추진 요망함.

⑦ 각학교 어학 실험실의 의무화 촉구요망(실험실없이 학생들의 회화능력의 향상은 불가능함)

⑧ 실력있는 교사의 서울 전입을 위해 서울 순위교사를 지방교사에게도 정당히 치를 수 있는 기회부여를 요망함(연구실적에 있어 교육감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서울 순위교사 응시위해선 사표내고 6개월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까다로움이 있음)

⑨ 250시간이면 자격연수인데 일반연수자 일지라도 2년 넘은 자는 이번이 특별연수이므로 1정을 받게 해주기 바람(몇달후 다시 1정을 받아야 하므로 이는 본인 및 당국의 이중사무의 노력부담을 초래하게 됨)

⑩ 모든 일선교사들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살피고 모든 연수자들에게 자격연수를 받도록 선처바람(교육청에서의 출장비와 출장비 급여 없는 점도 시정 요망)→1만원 받았으나 실소요경비는 3—5만원 정도임.

⑪ 영어교사 연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나 철저한 검토없이는 실적위주의 날림공사가 되어 국고의 낭비만 초래될 것임.

⑫ 재교육의 필요성 긍정하나 차출의 시기가 수업에 지장이 없어야 함.

⑬ 관료의식을 버리고 인간적인 교육기관이 되도록 문교부 쇄신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함(질적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시급)

⑭ 대학입시 제도에서 영문법·번역위주에 있는한 교과서를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람.

⑮ 평준화의 학력차이는 교사를 힘들게 하고 교육의 효과도 없으며 모든 공부를 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⑯ 새마을연수 제도처럼 자격연수 면제혜택을 요망함 경력 소급인정(60시간 일반연수와 동일시는 不可)

⑰ 국비장학생 기분으로 하고 싶었던 대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며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을 요망함

⑱ 경기도 출신 여교사로 10년 경력인데 가정과 직장의 병립문제 해소요망(남편거주지와 同一한 곳 근무 요망)

⑲ 공·사립교사 이동이 필요함.

⑩ 일반연수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해외연수도 골고루 배려하도록 요망함.

○근무교에 대한 요망사항 및 본인의 애로점

① 학교 당국에서의 출장비 지급 및 학교 수업시간 단축 요망(학교 수업 과다로 1일 5시간의 연수교육은 다소 무리) 학교 수업이 소홀하게 되어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모든 일에 불성실해짐

② 학습지도 및 사무분장등 부담 경감 필요

③ 통근거리 관계 지방 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음.

④ 기혼자의 사생활에 타격을 주며 특히 여교사는 주부로서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

⑤ 대학원생의 본의 아닌 결강에 대한 배려 요망

⑥ 정신적·육체적 부담으로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며 특히 겹치는 피로로 어학교사의 생명인 성대가 크게 상한 느낌

⑦ 교사의 봉급을 올리기에 앞서 인간적인 처우개선 요망(교사는 노예같이 혹사당하고 있음)

⑧ 다른 곳의 시간 이용이 불가능했으나 자체연수를 위해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짜임새있는 교과 운영이 어렵다.

⑨ 교실용으로는 부적당한 교과서와 Tape 구입이 영어교사도 모르게 이루어진다.

⑩ 사립학교는 본인이 눈총을 받아야 하고 건강문제도 심하다.

⑪ 근무교와 교육장소의 거리가 너무 멀어 건강이 악화됨

○연수교육 과정 운영 및 교수법에 대해 느낀점

① 저녁 식사 및 음료수 시설엔 만족하나 건물 간의 동선이 너무 길어서 수업시간 맞추기에 부적당함.

② 본 연수가 학생 교육에는 거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봄(회화 위주의 교육은 좋으나 교입시에서 문법 위주로 문제를 취급하기에 별로 반영이 되지 않음. 즉 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독본위주이기 때문임)

③ 특강시간이 별로 도움이 안되며 영작문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무척 고통스러웠고 부담스러웠음

④ 연수시간은 1일 3시간이 적당하다고 보며 한반의 인원수는 2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획기적인 교수법과 밀도있는 교과과정 운영이 요망됨

⑤ 학습 분위기가 기대에 어긋나며 개인 실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못됨

- ⑥ 중등교과서 중심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강습 요망
- ⑦ 좀더 철저히 기숙사를 이용하여 조직적인 훈련을 바람
- ⑧ 시간표 선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 개인 시간이 너무 잠식되지 않을 것임
- ⑨ 능력에 맞는 교재 및 교구 개발 요망
- ⑩ 교수법이라기보다 수업과정이 쉬우면서도 까다로워서 단순한 사람에게 생각할 기회를 줌
- ⑪ 외국인과의 접촉이 없던 사람에게는 어려우나 노력하고 있음(교수법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진 요망)
- ⑫ S.L 과 Lab 시간이 교육효과가 가장 크다고 봄
- ⑬ S.E 는 8—9명정도 적당하며, Lab 수업은 좀더 철저히 교육하기 바람
- ⑭ 필답고사 시간과 구술시험 시간이 반별로 달라서 시험문제 누설 가능성이 있음
- ⑮ S.E 는 너무 교재에 치중하여 대화의 기회가 적으며 개별적 발표력 배양이 필요함
- ⑯ 언어학에 대한 과정을 연구한 교수가 요망됨(영어교사에게는 peace corp 가 좀 부적당하다—해박한 지식, 정확한 발음 교수법의 다양성이 필요함)
- ⑰ SL II 는 끝까지 듣고 영작문 하는것 보다는 처음부터 들으면서 답을 작성하도록 하면 청취력에 도움이 될 것임
- ⑱ 교수 확보를 질적으로 충실이 하기 바람며 복사 시설이 필요함
- ⑲ 부설보다 독립적인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겠음

○연수원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 ① 외국인을 만났을때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해소됨
- ② 발음 및 회화의 향상이 됨
- ③ 듣기 능력이 향상됨
- ④ S.E 시간을 늘렸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임 단 현직에서 적용시키기에 난점이 많음

(ㄴ) 연수생의 설문에 대한 조사결과

연수생 중에서 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수생에게 수강 조건과 학습의욕에 관한 의견을 조사연구하였다. 이 설문지에 남자 28명과 여교사 82명, 합계가 110명으로 55%의 응답자를 얻었다. 교육경력은 5년 미만인 92명으로써 83.6%을 차지하고 있다.

1) 연수의 특징(제 1 기생인 경우)

- ㉠ 오전에 학교에서 정상근무하고 오후 및 야간에 수업한다.
- ㉡ 방학등의 휴가기간을 이용하지 않고 일과중에 실시하며 강습기간이 길다(8주이상)
- ㉢ 수강자들의 교육경력이 비교적 짧다(대개가 5년 미만인 교사임)

2) 설문지의 內容

- ㉠ 재교육 강습을 받는 교사는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교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 ㉡ 재교육 연수를 받는 교사는 수강할 수 있는 마음의 기본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 ㉢ 이 연수를 수료한 교사는 유인체제로 무엇을 바라는가?
- ㉣ 기타 참고가 될 사항

3) 질문지의 결과

○근무교의 여건

- ① 연수기간중 담당하고 있는 주당 학습지도 시간(〈표 8〉참조)

〈표 8〉

구분	내용 빈도비율	11시간~15시간		16~20시간		21~25시간		26~30시간		30시간이상		무응답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1	0.91	11	10	67	60.9	15	13.6	3	2.73	2	1.8	99
경기		3	27.3	2	18.2	3	2.7	3	2.7	0	0	0	0	11
계( )은 비율		4	(3.6)	13	(11.8)	70	(63.6)	18	(16.3)	3	(2.7)	2	(1.8)	110

〈표 8〉에 의하면 전체의 63.6%에 해당하는 교사가 21—25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으며 26시간에서 30시간 수업을 하는 교사가 16.3%, 30시간이상 하는 교사가 2.7%로 나타났다.

- ② 연수기간중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분장 (〈표 9〉참고)

〈표 9〉

구분	내용 빈도비율	강습전과 동일		임시로 다른분이 담당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91	82.73	8	7.27	99	90
경기		10	9.09	1	0.91	11	10
계( )는 비율		101	(91.8)	9	8.2	110	(100)

〈표 9〉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사무분장의 업무를 강습전과 동일하게 담당하면서 재교육 강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연수기간중 학급담임의 업무(〈표 10〉참조)

〈표 10〉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가 학급 담임의 업무를 그냥 계속하면서 수강하고 있으며 면접으로 담임수행 사항을 조사한 바 대부분의 교사가 오전에 학급조회를 수강자가 담당하고 종례는 적당히 귀가시키든지 옆반의 교사에게 부탁해서 처리하고 있었다. 〈표 8.9.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사가 1일 평균 4시간의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및

〈표 10〉

구분	비용 빈도비율	강습전과 동일		임시담임이 담당		무응답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84	76.4	12	10.9	3	2.73	99	90.0
경기		9	8.18	2	1.82	0	0	11	10.0
계( )은 계%		93	(84.6)	14	(12.7)	3	(2.7)	110	(100)

학급담임의 업무를 연수교육이전과 다름없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강의욕

① 이 강습이 청취능력에 도움이 되는가? (〈표 11〉참조)

〈표 11〉

빈도비율	문항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계
		빈도	91	19
비율	82.7	17.3	100	

〈표 11〉에 의하면 전체의 82.7%가 청취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나왔으며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교사는 17.3%에 불과하다.

② 현직에 종사하는 모든 영어과 교사가 이 강습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표 12〉참조)

〈표 12〉

빈도비율	문항	필요가 있다	희망자에 한해 필요	받을 필요 없다	계
		빈도	41	68	1
비율	37.3	61.8	0.9	100	

〈표 12〉에 의하면 현직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가 1회이상 이같은 강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의견은 37.3% 희망자에 한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意見은 61.8%,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0.9%에 불과하다. 위의 조사된 내용을 검토 해보면 87.2%에 해당하는 교사가 학습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영어교사는 1회이상 강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교사가 90.1%로 강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희망자에 한해서 강습을 받아야 한다든지 (61.8%)하는 의사 표시는 연수자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再教育 연수를 수료한 후에 오는 유인체제(보상)의 불만족이든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데 대한 강한 반발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인체제에 대한 기대

① 대학원에 입학 희망자 조사(〈표 13〉참조)

〈표 13〉

빈도비율	문항	대학원에 다니고 싶다	다니고 싶지 않다	무 반응	계
	빈도		63	42	5
비율		57.2	38.2	4.6	100

〈표 13〉에 의하면 전체의 57.2%가 대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반응이 나와 계속 공부하고 싶어하는 연수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大學院에 다니고 싶은 주된 원인은 60.3%에 해당하는 수강생이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어 하고 31.8%가 실력 배양을 통한 중·고교 영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교직이외의 기업체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교사는 6.3%에 불과했다.

② 이 연수를 수료한 후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사항(〈표 14〉참조)

〈표 14〉

빈도비율	내용	해외 연수 우선권 부여	영어 전공 대학원에서 학점 인정	기 타	계
	빈도		73	25	12
비율		66.4	22.7	10.9	100

〈표 14〉에 의하면 해외 유학에 대한 인정이 66.4% 영어전공의 大學院에 학점이 22.7% 나왔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연수기간이 장기 강습이고 학교에서 근무후 야간에 특별히 교육을 받고있는 노력을 생각해서 1정자격취득 기간이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수료후 일정 기간이 되면 상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달라는 점과(교육 대학원 졸업자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교감 강습 차출에 배려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표 14〉의 내용을 검토하면 66.4%에 해당하는 교사가 해외 연수에 대한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연수 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해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상당히 큰 유인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기타 참고사항

① 연수에 소요되는 왕복시간(〈표 15〉참조)

〈표 15〉에 의하면 전체의 78.2%의 교사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두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전체의 21.8%의 교사가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반응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였다.

〈표 15〉

빈도비율		시 간				
		1시간 미만	2—3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	무 응 답
빈	도	19	62	20	4	5
비	율	17.3	56.4	18.2	3.6	4.5

② 본 연수를 받으면서 특별히 귀가후 연습 및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체의 60%이고 40%는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필요한 경우 30분 정도면 족하다는 의견이 47.1%, 1시간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33%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근무후 야간에 수강하게 되는 수강생들에게 화히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히 학습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일면을 보여준다.

③ 이 학습을 받으면서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8.2%는 여 러면에서 무리가 온다고 반응 했으며 무리가 온다는 반응중 피로와 권태가 77.9%이고 소화 기든지 감각기관에 무리가 온다는 의견이 22.1% 나왔다. 연수기간중 피로와 권태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으나 신체의 어떤 지적된 부위가 무리가 온다는 것은 건강유지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차기 연수대상자의 차출은 건강문제도 고려해서 차출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본다.

④ 연수기간중에 생긴 경제적인 손실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2%가 5만원 미만이었고 51.8%의 교사가 5만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반응했다. 수강생중 대부분이 보충수업으로 인한 수당을 받기가 어려운 점들을 생각할 때 수강교사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원 이외에 학교 단위로라도 육성회 예산에서 출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적 마련이 되었으면 한다.

## (2) 제 2기생의 질문지 조사결과

본 질문지는 14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 ㄱ) 연수계획에 대하여
- ㄴ) 교육시설에 대하여
- ㄷ) 수업과정에 대하여
- ㄹ) 수업진행에 대하여
- ㅁ) 요망사항 또는 소감
- ㅂ) 일반적 사항 등이다.

이 질문지에 응답한 수는 158명이며 249명에 대한 비율이 63.45%이므로 우선 타당성을 인정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제 1기 1차의 60%와 2차의 55%에 비교 할 때 약간 증가되었다.





〈표 18〉

## 근 무 교

구분별	반별	1	2	3	4	5	계(%)
공	립	19	24	27	19	28	117(74.05)
사	립	9	10	7	7	7	40(25.32)
무	응답	—	—	—	—	1	1(0.63)
중	학 교	12	18	18	15	16	79(50.00)
고	등 학 교	8	9	9	9	12	47(29.75)
무	응답	8	7	7	2	8	32(20.25)

수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참조)

〈표 19〉

## 연 수 경 력

구분별	반별	1	2	3	4	5	계(%)
연수경력 있다		4	8	4	4	6	26(16.46)
연수경력 없다		23	26	30	20	30	129(81.65)
무	응답	1	—	—	2	—	3

## ⑤ 참가 여부의 선택권 유무

이번 연수과정에 참가할 의사가 있었다는 70.89퍼센트의 응답자중 44.47퍼센트만 선택권을 부여 받았고 50퍼센트 이상이 타의에 의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표 20〉참조)

〈표 20〉

## 참 가 여 부 선 택

구분별	반 별	1	2	3	4	5	계(%)
참가 여부 선택 있다		10	24	14	10	17	75(44.47)
참가 여부 선택 없다		16	10	20	15	18	79(50.0)
무	응답	2	—	—	1	1	4(2.53)
참가하고 싶은 마음 있다		22	23	25	16	26	112(70.89)
없다		5	6	6	6	8	31(19.62)
무	응답	1	5	3	4	2	15(9.49)
계		28	34	34	26	36	158(100)

## ⑥ 소속학교에서의 편의 제공 여부

근무학교에서는 무반응상태가 31.65퍼센트이고 싫어하는 경우가 22.78로서 합계 55.06퍼센트나 되므로 출장비 지급에 있어서 86.7퍼센트의 다수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표 21〉참조)

## ⑦ 연수계획에 대하여

〈표 21〉 소속학교에서의 편의 제공

구분별		반 별					(%)
		1	2	3	4	5	
1. 출장비	1) 충분하다	0	2	1	0	1	4
	2) 그렇다	4	3	3	4	2	16
	3) 부족하다	24	29	30	21	33	137(86.7)
	4) 무응답	—	—	—	1	—	1
2. 참가에 대한 이해도	1) 이해	9	16	16	9	21	71(44.94)
	2) 무반응	15	8	12	8	7	50(31.65)
	3) 싫어한다	4	9	6	9	8	36(22.28)
	4) 무응답	—	1	—	—	—	1(0.63)

연수기간이 너무 길다는 응답이 77.85퍼센트이며 주당 시간수도 58.23의 응답자가 너무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수시기에 대하여는 42.41이 적합하다고 응하였으나 32.91퍼센트가 부적당하다고 표시한 것에 대하여는 연말연시를 연수 시작후 1주만에 맞아야 하는 일이 그 이유인듯 구두로 표현되었다. (〈표 22〉참조)

〈표 22〉 연 수 계 획 에 대 하 여

구분별		반 별					계 (%)
		1	2	3	4	5	
1. 연수기간	1) 너무길다	25	28	29	17	24	123(77.85)
	2) 적당하다	1	4	3	5	9	
	3) 너무짧다	3	2	2	4	3	
2. 연수시기	1) 적합하다	19	14	10	8	16	67(42.41)
	2) 그렇다	6	14	6	6	5	52(32.91)
	3) 부적당하다	2	6	18	11	15	
	4) 무응답	1	—	—	1	—	
3. 주당시간	1) 너무많다	19	6	24	17	26	
	2) 적당하다	6	6	9	7	10	
	3) 너무적다	2	1	1	2		
	4) 무응답	1	—	—	—	—	

⑧ 교육시설에 대하여

ㄱ) 녹음기 시설에 대하여는 만족하다(34.81)와 그저 그렇다(44.94)를 합하여 79.75퍼센트가 긍정적인 반응이다.

ㄴ) VTR 시설에 대하여는 만족하다(37.97), 그저 그렇다(39.87)이다.

ㄷ) 교실(난방포함)에 대하여는 불만족하다가 44.30퍼센트로 흑한기에 일부 개선을 하였으나 불편을 느꼈음을 밝혔다.

ㄷ) 식사시설에 대하여는 만족했다(27. 22) 그저 그렇다(46. 20)로 합계 73. 42퍼센트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ㄹ) 기숙사 시설에 대하여는 63. 29퍼센트의 대다수가 불만족을 표시하여 난방시설의 미흡함을 밝혔다.

ㅂ)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는 별로 활용하지 않은 편이라고 보나 만족하다(18. 35) 그저 그렇다(46. 20)으로 합계 64. 55퍼센트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상 교육시설에서 종합해 보면 교실과 기숙사의 난방시설에 대한 불만외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표 23>참조)

<표 23> 교육 시설에 대하여

구분별		반 별					계 (%)
		1	2	3	4	5	
1. 녹음시설	1) 만족하다	7	16	15	6	11	55(34. 81)
	2) 그렇다	15	15	10	13	18	71(44. 94)
	3) 불만족하다	6	3	8	7	7	
2. 시설	1) 만족하다	11	13	16	8	12	60(37. 97)
	2) 그렇다	11	12	14	13	13	63(39. 87)
	3) 불만족하다	6	8	4	5	11	
3. 교실 시설(난방)	1) 만족하다	3	10	7	1	4	25(15. 82)
	2) 그렇다	10	15	13	11	14	53(33. 54)
	3) 불만족하다	15	9	14	14	18	70(44. 30)
4. 식사시설	1) 만족하다	3	12	9	7	12	43(27. 22)
	2) 그렇다	14	14	16	13	16	73(46. 20)
	3) 불만족하다	11	8	9	6	8	
5. 기숙사	1) 만족하다	1	7	4	1	2	
	2) 그렇다	4	13	11	9	6	
	3) 불만족하다	23	14	19	16	28	100(63. 29)
6. 도서관	1) 만족하다	5	8	7	4	5	29(18. 35)
	2) 그렇다	12	17	14	9	21	73(46. 20)
	3) 불만족하다	9	8	13	12	10	
	4) 무응답	2	1	—	1	—	

#### ⑨ 수업과정에 대하여

수업과정에 대하여는 반별로 차이가 있는 반응을 보였다.

ㄱ) 수업을 위한 Class의 크기는 만족하다(24. 05)를 제외하고 53. 16%의 응답자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1기생과 마찬가지로 연수인원이나 반원수를 아주 소단위로 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ㄴ) 외국인과의 개인접촉에 있어서는 불만족하다가 59.49%인데 위의 Class 크기에 대한 불만족과 상관의 크기를 알 수 있다.

ㄷ) 학과내용에 있어서는 만족하다가 25.95%이며 그저 그렇다가 46.20%이며 불만족하다가 27.22%를 제외하면 긍정적인 반응이다.

ㄹ) 교수방법에 대하여는 36명(22.78)을 제외하면 긍정적인 편이다.

ㅁ) 시험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역시 불만족하다가 30.38%를 제외하면 69.62%가 긍정적인 반응이다.

위의 결과로 볼 때 ㄱ)과 ㄴ)이 주로 S.E에 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S.E는 소인원을 요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학습내용이나 교수방법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표 24>참조)

<표 24> 수업 과정에 대하여

구분별	반 별	반					계 (%)
		1	2	3	4	5	
1. Class 크기	1) 만족하다	1	8	10	7	12	38(24.05)
	2) 그저 그렇다	8	8	7	5	5	33(20.89)
	3) 불만족하다	18	18	17	13	18	84(53.16)
2. 외국인과의 개인지도 접촉	1) 만족하다	1	3	4	4	5	
	2) 그저 그렇다	9	10	9	8	11	47(29.75)
	3) 불만족하다	18	21	21	14	20	94(59.49)
3. 학과내용	1) 만족하다	6	8	11	6	10	41(25.95)
	2) 그저 그렇다	12	16	13	15	17	73(40.20)
	3) 불만족하다	10	9	10	5	9	43(27.22)
4. 교수방법	1) 만족하다	5	5	11	7	10	38(24.05)
	2) 그저 그렇다	13	22	16	15	17	83(52.53)
	3) 불만족하다	10	7	6	4	9	36(22.78)
	4) 무응답			1			1
5. 시험평가방법	1) 만족하다	7	6	4	4	5	26(16.46)
	2) 그렇다	21	13	20	12	18	84(53.16)
	3) 불만족하다	0	15	10	10	13	48(30.38)

⑩ 수업진행에 대하여

ㄱ) Lab에 대한 반응은 만족스럽다(55.70), 그저그렇다(31.01), 합하여 86.71퍼센트 이상이 긍정적이다.

ㄴ) SL I에 대하여는 만족스럽다(48.10), 그저그렇다(39.87) 합하여 87.97퍼센트가 긍정적이다.

ㄷ) SL II 는 만족하다(22.78) 그러그렇다(41.77) 합계로 64.55퍼센트이며 불만족한 반응이 35.44임을 볼 때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ㄹ) Oral Interpretation 이 만족하다(44.30) 그저그렇다(37.34)이며 81.64퍼센트가 긍정적인 반응이다.

ㅁ) SE 에 대하여는 만족스럽다(48.10) 그렇다(40.51)이며 88.61퍼센트로 역시 긍정적이다.

ㅂ) Composition 에 대하여는 만족하다(46.20), 그저 그렇다(33.54)이며 79.74퍼센트가 긍정적인 반응이다.

〈표 25〉 수업 진행에 대하여

구분별		반 별					계 (%)
		1	2	3	4	5	
1. LAB	1) 만족하다	15	21	25	11	16	88(55.70)
	2) 그저 그렇다	11	12	6	9	11	49(31.01)
	3) 불만족하다	2	1	3	6	9	
2. SL I	1) 만족하다	13	16	19	6	22	76(48.10)
	2) 그렇다	11	16	13	13	10	63(39.87)
	3) 불만족하다	4	2	2	7	4	
3. SL II	1) 만족하다	5	10	8	7	6	36(22.78)
	2) 그렇다	11	17	17	5	16	66(41.77)
	3) 불만족하다	12	7	9	14	14	56(35.44)
4. Oral	1) 만족하다	10	17	18	11	14	70(44.30)
	2) 그렇다	13	14	12	11	9	59(37.34)
	3) 불만족하다	5	3	4	4	13	
5. S.E	1) 만족하다	6	16	20	13	21	76(48.10)
	2) 그렇다	18	13	10	12	11	64(40.51)
	3) 불만족하다	4	5	4	3	4	
6. Comp.	1) 만족하다	14	10	20	16	13	73(46.20)
	2) 그렇다	8	9	12	8	16	53(33.54)
	3) 불만족하다	6	15	2	2	7	
7. Drama	1) 만족하다	7	13	9	5	6	40(25.32)
	2) 그렇다	8	15	15	5	11	54(34.18)
	3) 불만족하다	13	6	10	16	19	64(40.51)
8. 교수법	1) 만족하다	2	6	6	6	5	
	2) 그렇다	12	16	21	12	20	81(51.27)
	3) 불만족하다	13	12	1	2	3	
9. 특강	1) 만족하다	0	8	13	9	9	39(24.68)
	2) 그렇다	11	17	12	8	18	
	3) 불만족하다	16	8	8	7	6	
	4) 무응답				2	3	

스) Drama 에 대하여는 만족하다(25. 32), 그렇다(34. 18)이며 불만족하다(40. 51)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연구의 여지가 있다. 이 課程 개발을 제 2기생에게 처음 시행하였든 까닭도 있겠으나 불만족한 반응을 보여준 유일한 이유로서는 81명(51. 26)이 1반(14명), 2반(17명), 3반(15명), 4반(19명), 5반(16명)으로 각 반에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들은 영문학과(외국어교육학과 포함) 출신이 아닌 타과 출신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영문학적 기초교육은 대학에서 교육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25>참조)

⑪ 자기가 기대한 목표의 달성도

연수과정을 통해서 기대했던 목표의 달성도에 대하여 불만족했다(46. 84) 그쳐 그렇다(44. 30), 충분히 만족했다(8. 86) 46. 84퍼센트가 자기 기대에 불만족한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6>참조)

<표 26> 자기가 기대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

구분별	반 별						계 (%)
		1	2	3	4	5	
1) 충분히 만족했다		0	5	4	1	4	14( 8. 86)
2) 그쳐 그렇다		9	12	17	13	19	70(44. 30)
3) 불만족하다		18	17	13	12	14	74(46. 84)
4) 무응답		1					
계		28	34	34	26	37	

<표 27>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구분별	반 별						계 (%)
		1	2	3	4	5	
1. 본인의 학습에	1) 많이	7	13	17	10	16	63(39. 87)
	2) 조금	17	15	11	13	16	72(45. 57)
	3) 전혀 못됐다	2	3	3	2	1	
	무응답	2	3	3	1	—	
2. 학생 가르치는데	1) 많이	4	9	12	10	12	47(29. 75)
	2) 조금	16	21	15	12	16	80(50. 63)
	3) 전혀 못됐다	7	3	4	3	6	
	무응답	—	—	3	1	—	
3. 인간적인 교류에	1) 많이	3	12	10	8	5	38(24. 05)
	2) 조금	17	15	13	11	23	79(50. 00)
	3) 전혀 못됐다	5	4	6	4	4	
	무응답	—	—	5	3	—	
4. 자기성숙	1) 많이	1	13	11	10	6	41(25. 95)
	2) 조금	18	15	10	10	17	70(44. 30)
	3) 전혀 못됐다	3	4	5	2	4	
	무응답	—	—	8	4	—	

㉔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ㄱ) 본인의 학습에 많이 도움되었다(39. 87), 조금되었다(45. 57)이며 85. 44퍼센트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냈다.

ㄴ) 학생을 가르치는데 많이 도움되었다(29. 75) 조금 도움되었다(50. 63), 80. 38퍼센트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표시하였다.

ㄷ) 인간적인 교류에 많이 도움되었다(24. 05) 조금(50. 0)이며 74. 05퍼센트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표시하였다.

ㄹ) 자기성숙에 많이 도움되었다(25. 95) 조금되었다(44. 30)이며 70. 25퍼센트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모두 도움이 된 편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보아지나 약 30퍼센트의 응답자가 도움이 못되었다라든지 무응답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더 많은 연구와 운영의 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아진다(<표 27>참조).

#### 다. 평가 결론

다음 몇가지를 결론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ㄱ) 특수연구의 목표를 ① 들을 수 있고, ② 말할 수 있고, ③ 바로 쓸 수 있고, ④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데 두었으므로 아주 만족한 편은 되지 못하였으나 어느정도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ㄴ) 연수생의 행동변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들의 수용태도에 많이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부수적인 문제들 즉 여건과 환경이 개인적인 면에서나 운영과 시설면에서 미흡하였으므로 많은 불편을 느끼게 했다고 본다. 그러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많다.

ㄷ) 학습내용의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통합성을 유지하며 심리적 과정에 부합하도록 고려하였다. 그러나 연수기간의 설정이 개인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밀도있게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를 알게 되었다.

ㄹ) 사회적 요청에 부합되고 개인적 능력발달에 장려가 되며 경험의 계속성을 가지고 목표달성에 부합하게 되었다. 목표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학습경험과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인 타당성보다 연수생의 현실성이 더 연구되고 조직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ㅁ) 1기와 2기의 지역적 차이를 비교하여 반편성의 원칙을 달리한 결과 서울만을 대상으로 할 것과 또 각 시수준과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능력별로 연수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다.

ㄴ) 자격연수와 일반연수의 대상자 차출에 균등한 제한조건이 필요하며 양자의 혼합적인 편성은 학습의욕의 촉진과정이나 교육과정 운영면에 있어서 현실적이 못된다. 즉 자격연수는 법적규정에 따를지라도 일반연수자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재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하며 연수기간에도 신축성을 가져야 하겠다.

ㄷ) 반편성에 있어서 기본단위의 학생수는 25명이나 연수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신축성을 고려하였다. 대단위에서 중단위 그리고 소단위와 개인별 지도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시도했으나 연수생들의 통념이 중·고등학교 학급편성의 무변화성에 대하여 습관화되어 있다고 본다.

ㄹ) 연수원을 수료한 교사의 보상으로 대학원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보다는 해외연수에 대한 소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ㅁ) 연수교육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참고로 할 때 지역적 차이가 많고 중학교 교사가 많으며 (76% 이상) 전체적으로는 남교사가 많으나 (69% 이상) 1기는 여교사가 많다 (68% 이상), 35세 미만이 약 70%에 달하며 일반연수가 약 60% 이상이고 출신대학별(검정고시 합격자와 무표시자를 제외하고 55개 교임)과 교육경력의 차이(1년미만에서 14년미만임)가 너무 크다. 1년 미만 71명에서 5년이상이 144(32.07)이나 차이가 있으므로 반응에 있어서나 요망사항이 너무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수연수는 기별로 가능한 한 동질집단을 차출하여 교육 목표는 동일하되 지도내용 지도방법, 그리고 연수기간등을 신축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부록 1. 연수원 1·2기별 통계자료 및 질문지 처리 결과 자료 도표 목차.

1. 표 1에서 표 7까지는 일반통계 자료임.
2. 표 8에서 표 15까지는 연수생 자체의 조사 결과 자료임.
3. 표 16에서 표 26까지는 제 2기 질문지조사 결과 자료임.
- 표 1. 시·도별 분포
- 표 2. 중·고별 분포
- 표 3. 성별 분포
- 표 4. 연령별 분포
- 표 5. 연수구별 분포
- 표 6. 출신대학별 분포
- 표 7. 교육경력별 분포
- 표 8. 연수기간중 담당하고 있는 학습지도시간
- 표 9. 연수기간중 근무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분장
- 표 10. 연수기간중 학급담임 업무
- 표 11. 청취능력에 도움이 되는지의 의견
- 표 12. 모든 현직교사에게도 필요한지의 의견
- 표 13. 수료후 대학원 희망자 조사
- 표 14. 수료후 혜택 받고 싶어하는 사항
- 표 15. 연수에 소요되는 왕복시간
- 표 16. 연령별 (2기생 응답자)
- 표 17. 교육경력별 (2기생 응답자)
- 표 18. 근무교 (2기생 응답자)
- 표 19. 연수경력 (2기생 응답자)
- 표 20. 참가 여부의 선택권 유무
- 표 21. 소속학교에서의 편의 제공 여부
- 표 22. 연수계획에 대하여
- 표 23. 교육시설에 대하여
- 표 24. 수업과정에 대하여
- 표 25. 수업진행에 대하여
- 표 26. 자기자 기대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
- 표 27.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부록 2. 제 2기 T.R.I. 연수과정의 자체평가를 위한 질문지

이 질문지는 제 2기 TRI 연수과정의 자체 평가를 위한 것인 동시에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느끼신대로 표( )해 주시고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성 별 : 남( ) 여( )  
 나 이 : 만( )세  
 결 혼 : 미혼( ) 기혼( )  
 소속된반 : ( )
- 2) 소속학교 : 공립( ) 사립( ) 중학교( ) 고등학교( ) 그외  
 재직연수 : ( )년 ( )개월
- 3) 나는 전에 이번 TRI와 같은 연수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 ) 없다( )
- 4) 나는 이번 TRI 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 없었다( )
- 5) 본 TRI 연수참가 계획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1. 많이 있었다 .....( )
  2. 그리 있지 않았다.....( )
  3. 전혀 없었다 .....( )
- 6) 본 TRI 연수를 위하여 소속학교에서의 편의는
  1. 출장비 : 충분했다( ) 그저 그렇다( ) 충분치 않다( )
  2. 수업시간(또는 학교근무일수) : 줄었다( ) 그대로다( ) ( ) 늘었다( )
  3. 잡무처리 : 줄었다( ) 그대로다( ) 늘었다( )
  4. 참가에 대해 학교측은 : 이해한다( ) 무반응( ) 싫어한다( )
  5. 그 외의 편의제공은
- 7) TRI 연수 계획에 대하여
  1. 연수출석일수가 나에게 : 너무 길었다( ) 적당했다( ) 너무 짧았다( )
  2. 연수시기가 나에게 : 적합했다( ) 그저 그랬다( ) 적합치 못했다( )
  3. 주 평균 수업시간이 나에게 : 너무 짧았다( ) 적당했다( ) 너무 적었다( )
- 8) 교육시설에 대하여
  1. 녹음시설 : 만족했다( ) 그저 그랬다( ) 만족치 못했다( )
  2. VTR 시설 : " ( ) " ( ) " ( )
  3. 교실시설(난방포함)( ) " ( ) " ( )
  4. 식사시설 : " ( ) " ( ) " ( )
  5. 기숙사시설 : " ( ) " ( ) " ( )
  6. 도서관시설 : " ( ) " ( ) " ( )
- 9) 수업과정에 대하여
  - (1) 수업을 위한 CLASS 크기 : 만족했다( ) 그저 그랬다( ) 만족치 못했다( )
  - (2) 외국인과의 개인지도접촉 : " ( ) " ( ) " ( )
  - (3) 학과내용 : " ( ) " ( ) " ( )
  - (4) 교수방법 : " ( ) " ( ) " ( )
  - (5) 시험(평가)방법 : " ( ) " ( ) " ( )
- 10) 수업진행에 대하여
  - (1) Lab : 만족했다( ) 그저 그랬다( ) 만족치 못했다 : ( )

- (2) SL I : " ( ) " ( ) " ( )
- (3) SL II : " ( ) " ( ) " ( )
- (4) Oral : " ( ) " ( ) " ( )
- (5) SE : " ( ) " ( ) " ( )
- (6) Composition : " ( ) " ( ) " ( )
- (7) Drama : " ( ) " ( ) " ( )
- (8) 교수법 : " ( ) " ( ) " ( )
- (9) 특강 : " ( ) " ( ) " ( )
- 11) 본 TRI 연수과정을 통해 내가 기대하고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하는데  
충분히 만족했다.....( )  
그저 그랬다.....( )  
만족치 못했다.....( )
- 12) 본 TRI 연수과정은 다음의 측면에서 나에게 도움을  
1. 본인의 학습에 2. 학생을 가르치는데 3. 인간적인 교류에 4. 자기 성숙  
많이 주었다.....( ) ( ) ( ) ( )  
조금 주었다.....( ) ( ) ( ) ( )  
전혀주지 못했다.....( ) ( ) ( ) ( )
- 13) T.R.I를 끝내면서 전반적으로 전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14) T.R.I를 끝내면서의 소감은?

대단히 감사합니다